www.sjsc.or.kr

발달장애 사회성 발달 전문기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동가 Vol.4 2015 여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갑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2동 28-1)
TEL **02.448.3302** FAX **02.448.6022**

Mission & Vision

미 션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비 전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선도하는 대표기관

운영목표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목표



동가童歌
아이들웃음소리

2015 여름 통권 4호

제 4 호 발행 2015년 6월30일
발 행 처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2동 28-1) Tel.02-448-3302
발 행 인 추석호
편 집 인 홍완기
자료정리 주민성, 이정순, 소연자, 강은주, 최보윤, 최성민, 임정택, 원미란
편집/인쇄 주식회사 디자인커뮤니케이션 1588-4654 www.toprint.co.kr

Contents

4 **시설장 인사말**
10년의 내공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추석호 센터장

5 **전문가 칼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지?/교육상담 및 심리전공 박사 이선화

8 **2015년 상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사회성증진반

13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15 **후원사업**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체험여행/한국타이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발달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동화일러스트 꿈꾸기'/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컬러링북콘테스트/화방넷, 짐모아

20 **센터교육, 부모교육, 직원워크샵, 운영위원회 회의**

21 **Essay** 어울림과 공간의 둥지...사회적응센터/이승민(장훈어머니)
환한 미소가 고마운 세헌아~~/박은미(임세헌어머니)

23 **자원봉사이야기** 우리 센터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질 날을 기대하며/김정자
꿈을 위한 한걸음/최하은

26 **2014년 사회적응운동 이용자 심리관찰 보고**

30 **함께하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31 **외부강사 소개**

32 **이용현황**

34 **2015년 1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36 **2014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

37 **꿈에그린 도서관 소식**

38 **하반기 센터 일정 7월~12월**

39 **승수의 추억이야기**



www.sjsc.or.kr



“10년의 내공,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가 설립 된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센터가 생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공장으로 쓰던 건물로 적막하기만 했던 건물 외관, 쓰레기더미가 잔득있던 건물 안 내부, 전기, 수도 모든 것이 멈춰져 있었던 건물.

자폐성장애 1급인 장애아이로 인해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에 몸을 담게 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센터를 만들었던 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불씨는 어느덧 발달장애 전문기관이라는 큰 타이틀로 자라났습니다.

지나고 보니 지난 10년이란 세월이 어제와 같고 세월이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해준 직원이 있었고, 저희 직원을 믿고 아이를 맡겨주신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유형 중에서 발달장애만을 위한 사업으로 10년 업적을 쌓았다 함은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발달장애관련 분야에서 10년을 한길만 걸었다면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준 든든한 빽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개인의 독특한 색깔과 그 색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서로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새로움을 향한 도전의식,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센터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강한 교사가 있고, 그런 교사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센터!

10년지기의 내공과 근성, 친화력과 도전정신을 앞세워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꿈과 희망의 무지개가 떠있는 날을 고대하며 늘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하는 우리 내 소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추석호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장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지?

아주대학교 교육상담 및 심리전공 박사 **이선화**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녀온 우리아이의 일상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타 들어가는 것은 부모 마음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또 무엇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지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점



· 말 잘 듣기
· 공부 잘 하기
· 건강하기
· 형제간 싸우지 않기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점

· 장난감 사주기
·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허락하기
· 공부하라고 안하기
· 혼내지 않기



Tip 아이의 잘못된 행동!! 수정하는 방법

01.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

02.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 과거 다른 잘못한 일까지 다 꺼내다 이야기하면 절대 안돼요!!
  절대로 지금 잘못한 방금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03. 반복할 시 즉시 수정하기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

대화의 첫걸음 반겨주기

긴 시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보자마자 반겨줍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처럼 아이의 학업을 살피는 것이 아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처럼 "우와~우리 00이 왔어?", "오늘 즐거웠어?",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어?"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이가 돌아 온 것 그 자체에 대한 **반가움을 마음껏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죠??

대화 유지 기술 반응하기 - 1. 되돌려 말해주기

아이의 말을 듣고서 "그랬어?", "정말?" 과 같은 반응을 하거나 아이가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수진이랑 은하랑 인형놀이 했어."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면 "응~ 친구들이 인형놀이 했어?" 라고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대화 유지 기술 반응하기 - 2. 공감해주기

아이가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경험했을 법한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진이랑 은하랑 인형놀이 해서 우리 민영이 재미있었겠다~"라고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기는 아이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대화 유지 기술 반응하기 - 3. 시도한 것 칭찬해주기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시도한 많은 행동들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미숙한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시도한 관계적 행동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시도한 것에 대해 칭찬 해주는 것**은 아이가 받을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따라 해주고, 아이가 경험할 법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것은 엄마가 자녀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시도를 한다면 아이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마트나 여행을 갈 때 떼쓰는 아이들로 많이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떼쓰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좋은 방법이 **의사결정하기**입니다.

제한 설정하기

의사를 결정할 때 아이와 함께 허용 불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설정된 품목에 없는 예상치 못한 것을 아이가 선택하게 되면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생각 물어보기

제한을 설정한 후 마트에 갈 때 아이가 사야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여행시에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아이로 부터 부모가 존중해주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의견 제시

아이의 생각을 들은 후 엄마의 생각도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타협점 찾기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불일치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면 떼쓰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상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2015년 상반기 사회적응운동 활동사진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아이들 모습 정말 멋지죠?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라인 스케이트





탁구





계절스포츠(눈썰매장)/ 게임활동






5단계

축구교실

기 간 : 3월~10월, 매주 토요일 10시~ 12시

2월23일 오디션을 통해서 이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3월 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박광철,고종훈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땀 흘리면서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디션! 누가 누가 잘하나 실력을 뽐내어 보아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축구를 배워요~♬










사회성증진반



직업체험교육 **네일아트**

직업체험교육으로 10회기에 걸쳐 네일아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손마사지, 베이스, 탑코트, 네일폴리쉬 바르기, 도트찍기, 그라데이션, 워터 아트, 큐빅붙이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알록달록하게 손톱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림그리기 행사

일정: 4월 10일　인원: 15명
장소: 인사동 쌈지길 가운데마당
쌈지길과 예비사회적기업 ㈜꿈담이 함께하는 그림그리기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습니다. 동양화가 성영록 작가님과 함께 합동 작품 그림그리기, 텀블러 만들기를 하고 인사동의 유명한 간식거리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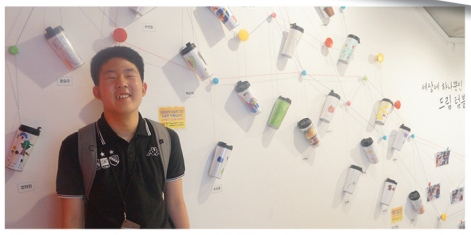


전시회

일정: 5월 1일~31일
장소: 인사동 쌈지길 계단갤러리
그림그리기 행사를 마친 후 5월 한달간 쌈지길 갤러리에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갤러리를 방문하여 자신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체험여행

체험여행은 장애아동에게는 오감능력 향상과 사회성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형제애 및 가족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장 소: 경기도 용인 청계목장
행 사 일: 2015년 4월 11일(토)
참가인원: 46명
체험프로그램: 치즈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트랙터타기, 송아지우유주기, 소젖짜기, 건초주기,
동물 먹이주기














음악교실

그룹 원들과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참여.
자기 표현의 증진 및 사회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 간 : 3월~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 15시
수업내용: 합창(90%), 악기(10%)

발성과 자유곡 1곡 중 선택하여 실기시험(오디션)을 통해 모집인원을 선정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후원 사업

도시를 벗어나 과학을 체험하고,
우주의 신비를 느껴 볼까요?



야광성도만들기 체험

내 별자리는 무엇일까?
불을끄면 별자리가 보여요^^



우리가 천문대에 온 이유, 하늘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보고 친해지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우리 친구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한 단계 더 발전했답니다.

태양 관측하기

우리 친구들…!!
태양을 눈으로 보는건 처음이죠?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1월 한국타이어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1월15일(목) 경기도 장흥 송암천문대로 『과학체험여행』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체험여행』 행사는 해설가 선생님의 진행으로 천체관측, 야광성도만들기, 우주 신비 알기, 로켓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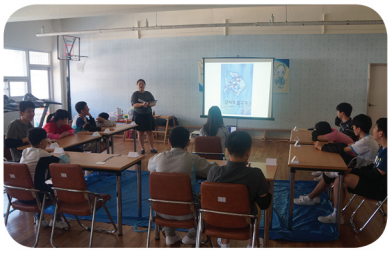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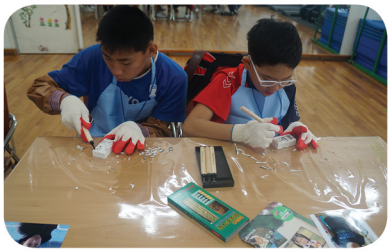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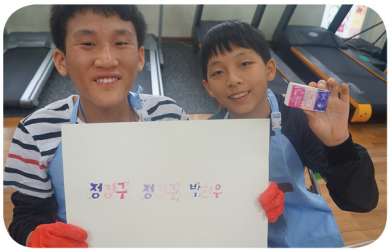
발달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동화일러스트 꿈꾸기**

프로그램명 발달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동화일러스트 꿈꾸기
강 사 선미화 작가('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 그림에세이 저자)
보조강사 최우정, 제갈민정
일 시 2014년 9월~11월 매주 토요일 10회기
참여인원 13명
후 원 사랑의 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시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회기 무지개물고기 표현하기




2회기 낙관만들기와 자화상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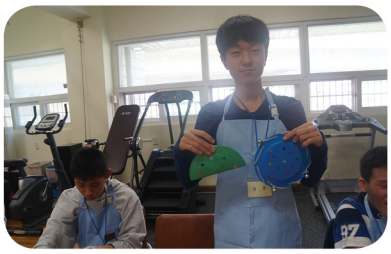




3회기 그림책 모사하기와 가면만들기





4회기 악기만들고 연주하기




5회기 동물원 그리기





6회기 여러가지 감정(얼굴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7회기 명화를 관찰하고 모사하기




8회기 과자집 디자인하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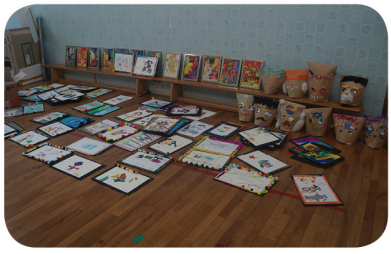

9회기 손바닥으로 물감찍기





10회기 : 9회기동안 완성했던 작품을 꾸미고 전시회준비하기 & 수료식












컬러링 북 콘테스트

요즘 대세 컬러링북!! 스트레스 해소 효과로 어른들을 위한 색칠공부로 인기중이죠!
우리 아이들도 색채치료의 일종인 컬러링 북 콘테스트에 도전해보았어요
화방넷/(주)짐모아가 주최하는 컬러링북 콘테스트 출품작들 함께 감상해볼까요?



센터 교육

교 육 명 : 장애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법에서의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10:00~12:00
참여인원 : 25명
장 소 : 회의실



재활심리치료 부모 교육

교 육 명 : 부모-자녀들의 대화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증 해소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10:00~12:00
참여인원 : 부모 8명
장 소 : 회의실



직원 워크샵

일 시 : 2015년 4월 30일(목) 10:00~19:00
참석인원 : 센터직원 10명
장 소 :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운영위원회의

회 의 일 : 1차 2015년 2월 24일(화) 14:00
2차 2015년 6월 23일(화) 14:00
회의목적 : 2014년 사업 결과보고 , 2015년 1차 추경예산 심의, 2015년 주요사업 검토
참석인원 : 운영위원 7명
장 소 : 회의실



Essay

어울림과 공감의 둥지... 사회적응센터

장훈 어머니 **이 승 민**



초등 사회성증진반을 졸업하고, 중등반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 다른 체육프로그램은 대기중이라 사회적응센터를 다니지 못했던 1년여 시간이 훈이에게 있었습니다.
외국인처럼 부자연스러운 억양과 무미건조한 말투로 두눈을 꼭감고 두손 모아 올린채로 또박또박 소리내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느님, 저 장훈인데요 사회적응센터 다시 다니게 해 주세요. 못다니까 너무 힘들고 기분이 안좋으니까요 아시겠죠?"꼬오옥 말이예요!"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진중하고 바른 자세에 귀엽기도 하여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두번에 그치지 않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훈이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이듬해에 사회성증진반 중등반이 개설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신청접수를 받던 날 서둘러 센터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을 뵙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돌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이 뿐만 아니라 저도 사회적응센터가 많이 그립고 허전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다행히 신청순번 안에 들어 훈이는 사회성증진반과 사회적응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고, 날개를 단 것 처럼 너무나 신나고 즐겁게 사회적응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사회적응센터를 다니면서 성장해가는 훈이를 보면서 더욱 센터의 각별함과 소중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선, 이직하지 않으시고 센터를 굳건히 지키시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에게서 느껴지는 훈훈함과 무한 신뢰감은 타 교육기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자랑거리이자 장점입니다.

또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중학교를 다니는 훈이는 많은 시간을 주변인처럼 겉돌거나 혼자이거나 힘들어 하면서 보내야 했기에 많이 경직되고 딱딱한 표정일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건물 앞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둥지를 찾은 듯 만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수업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훈이 뿐만 아니라 저도 센터를 통해 알게 된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고민거리나 담소를 나누며 위안받고,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지금은 훈이와 센터를 통해 알 게된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회적응센터가 더욱 번창하여 규모가 커져 학령기 뿐만 아니라 청장년이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면서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Essay

환한 미소가 고마운 세헌아~



임세헌 어머니 **박 은 미**

여섯 살 세헌이가 처음 장애 진단을 받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 도움을 청한 구청에서 알려준 곳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였습니다.

장애라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실날같은 막연한 기대 속에 센터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세헌이는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부족한 사회성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룹별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운동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친구들과 관계형성, 협동심, 경쟁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두려움 많던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건강과 즐거움도 함께 얻었습니다.

사회성증진반에서의 교육활동은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없는 학교생활에서 비슷한 또래와 함께 생활하고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미숙한 사회적응 기술의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성취해가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곧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된다면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야 하는 우리가 아닌 꼭 필요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 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응 지원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센터 안에서 늘 행복했던 세헌이의 환한 미소가 계속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센터장님, 선생님, 행정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요리시간~^^
오늘은 선생님과 호떡을 만들어볼까?~~ㅎ
친구들의 다정한 선생님~
김혜민선생님



오늘 간식은 비빔국수~!!
면요리의 달인~!!
매주 월요일
김정자 선생님



오늘은 성내천으로 고고~!!
징검다리도 한걸음 한걸음~!
건너봅니다.
오늘은 얼짱 선생님과 함께
성내천을 걸어요
매주 수요일 조혜민 선생님



아이들의 사회적응운동을
즐겁게 가르치는 착한 선생님
으로 기억해죠^^
매주 수요일
송혜진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줄넘기 해볼까?
매주 수요일
최하은 선생님



발달장애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집이 가까워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봉사를 하려니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슬며시 내 손을 잡으며
씨~익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그 동안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벅차 옵니다.

자원봉사자 이야기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질 날을 기대하며…

마천세계로교회 봉사자 **김 정 자**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무척이나 쑥스럽고 부끄럽다.
긴 직장생활 동안 가정 살림이랑 아이들 돌보는 것, 남편 내조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한 것이 없는데...
말로만 1인3역 슈퍼우먼이라 생각하며 지냈었다. 퇴직 후 무언가 모를 무기력감과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듯한 우울함이 있었다.

작년 이맘때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 주일예배 주보에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자원봉사 지원서가 들어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남는 시간에 한번 해봐야지하 는 막연한 마음과 시간 선택도 자유롭고 해서 일단 지원을 했다. 그리고 센터에 방문해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과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듣고, 작은 도서관과 놀이터의 정리를 맡았다.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처음엔 눈이 마주쳐도 어색하게 피하고, 텔레비전에서 접하던 발달장애 아이들을 떠올리며 살짝 긴장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좀 더 알려면 수업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던 어느 날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간식도우미! 첫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교실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동그래진 눈으로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속 물어오는 것이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요리선생님이야. 인사해"하고 말씀하시자,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안녕 하세요" 인사하며 내 주위로 몇몇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몹시 궁금한 것이 많은 그야말로 순수한 아이들이었다. 규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요령 피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 주는지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없는 솜씨에 발휘한다고 했지만 혹 맛없어 안 먹으면 어쩌나 했는데, 얼마나 잘 먹던지 참 기분 좋은 아이들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나였다. 약간의 배려로 먼저 웃고 다가가면 한없이 순수하고 명랑한 아이들인데...아직도 내가 늘 만나는 아이들 외에는 서먹하지만 그래도 먼저 웃어주고 말 걸어 인사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열려가고 있다. 차츰 차츰 더 가까워질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센터로 향한다.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꿈을 위한 한 걸음…

대학생 봉사자 **최 하 은**

3월초쯤 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 날, 어색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인사를 하고, 또 아이들도 제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사회적응 교육을 받을 때 옆에서 같이 뛰고 달리고 재미있게 해 주려고 노력했고, 어느새 아이들은 옆으로 다가와서 "선생님 손잡고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왠지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더욱 힘차게 웃으면서 봉사하였습니다.

봉사하면서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체육관에서 아이가 음료가 먹고 싶다고 열어달라고 해서 따주다가 흘려서 당황했던 일과 아이에게 꼬집혀서 살이 뜯어지고 멍들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솔직하게 힘들고 지쳐서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저도 웃게 되어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힘내서 아이들을 더 웃게 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 마음을 다친 아이와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 학습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여러가지 장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와 다를 게 없는 순수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주저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나의 편견을 없앨 수 있어 좋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장애에 관련된 일을 공부해서 편견을 없앨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꿈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사회적응운동 이용자 심리관찰 보고

1. 사회적응운동 이용자 심리관찰

지표명

· 월별 심리관찰기록지
· 관찰영역 : 우울, 불안, 분노 및 짜증, 충동조절 및 주의력, 문제행동 5개 영역
· 해　　석 :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함.(최하점 :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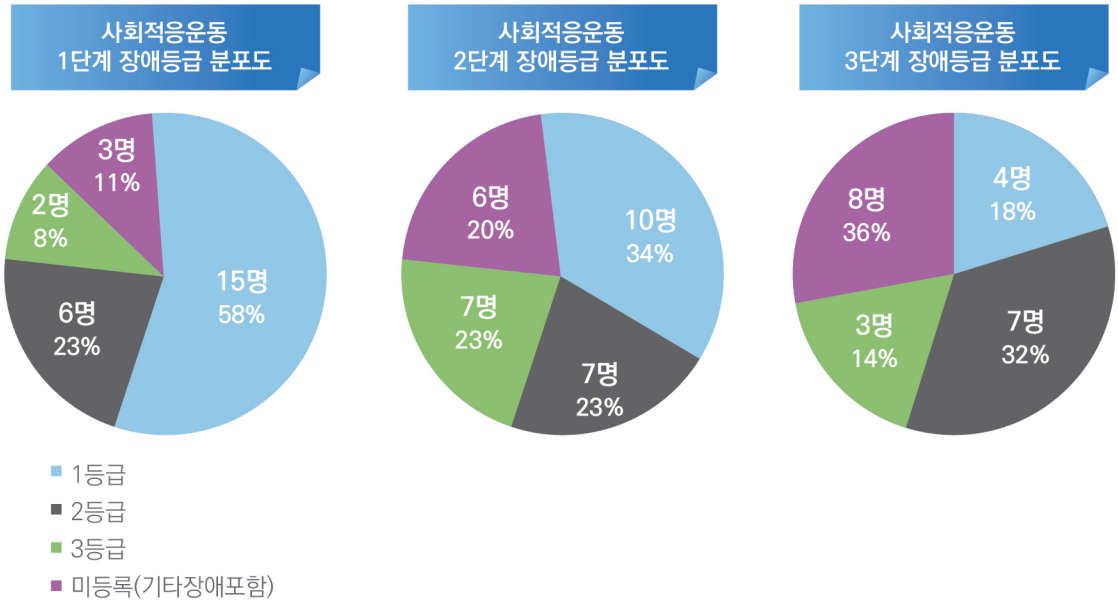
측정내용

· 측정대상 : 사회적응운동 1단계~3단계 이용자
· 측정방법 : 임상심리사가 사회적응운동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아동 개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당란에 체크, 특성을 기록.
· 측정기간 : 2014.01. ~ 10.
· 측정대상 표본수 : 78명

심리관찰을 통한 개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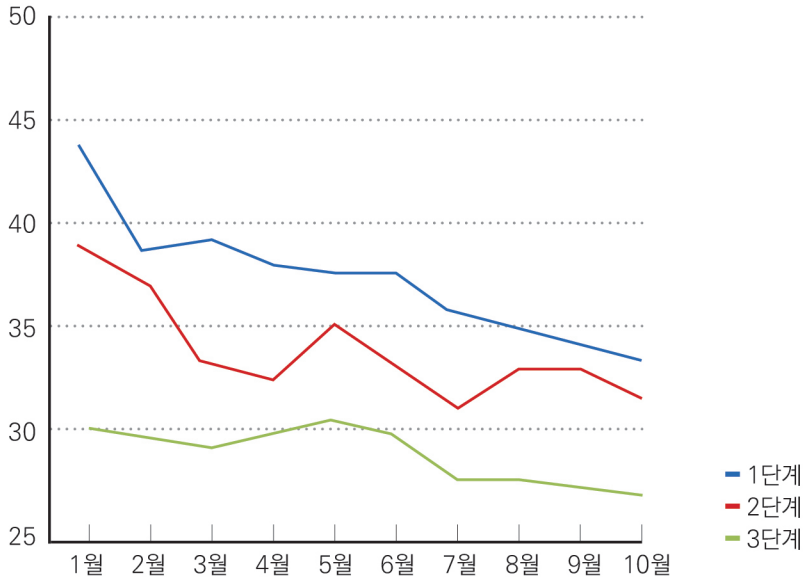
매월 이용자들의 관찰된 심리적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아 담당교사와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 후 담당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적용하도록 도와줌.

2. 단계별 장애등급 분포도



3. 단계별 심리관찰 변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명	월별 심리관찰 총점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적응운동 1단계	44.4	39.04	39.28	38.44	37.92	37.58	35.65	34.88	34.23	33.42
사회적응운동 2단계	39.3	37.13	33.54	32.8	35.31	33.42	31.19	38.93	33.23	31.63
사회적응운동 3단계	30.13	29.67	39.17	39.89	30.45	29.7	27.75	27.57	27.19	2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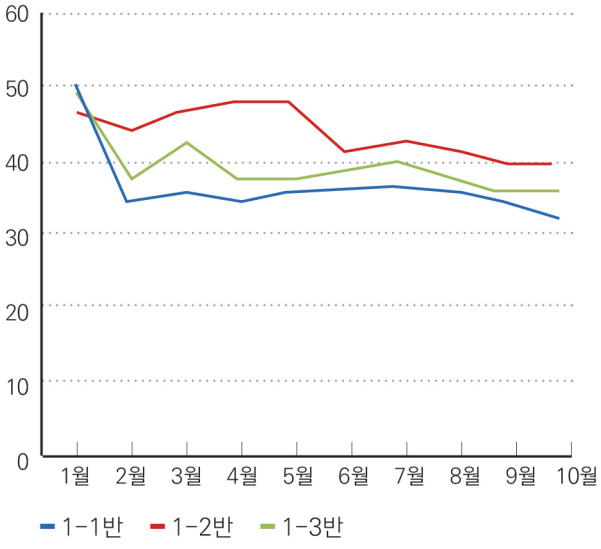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정도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측정

착석, eye contact, Social communication 어려움 등 자폐 정도가 짙고 외부자극에 굉장히 예민하며 인지적 및 신체적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문제행동(울음, 소리지르기,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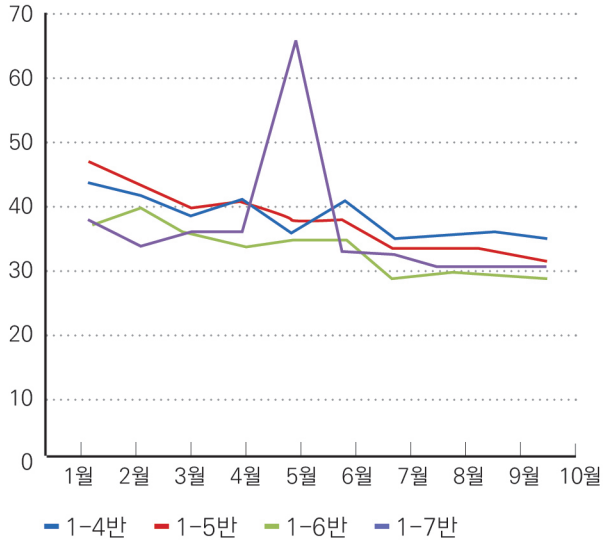
평균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단계는 1단계이며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단계(그래프의 기복)는 2단계로 나타남

4. 단계 반별 심리관찰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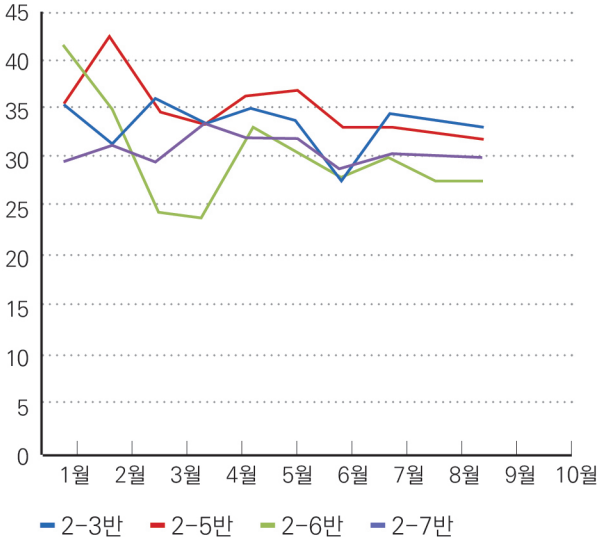
1) 사회적응운동 1단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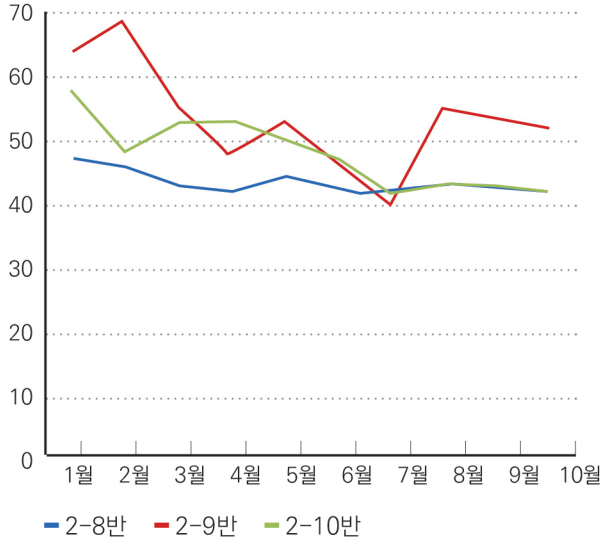
1) 사회적응운동 1단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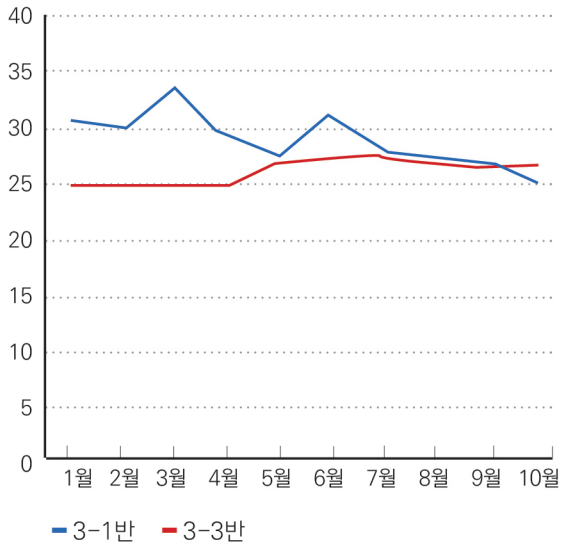
2) 사회적응운동 2단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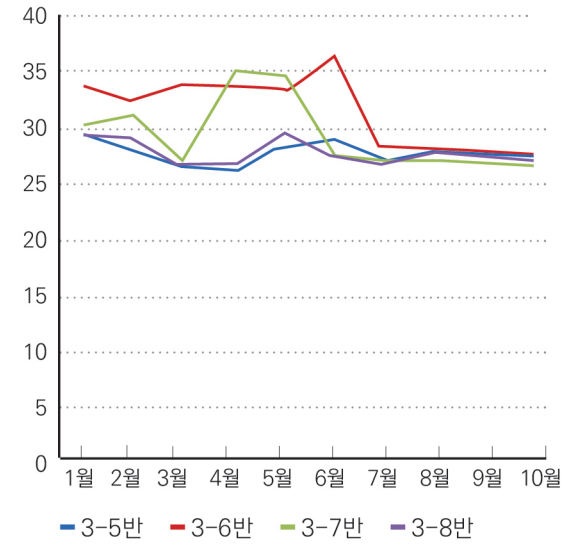
2) 사회적응운동 2단계(화)



3) 사회적응운동 3단계(월)



3) 사회적응운동 3단계(화)



5. 결론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중증 장애 이용자의 1년간 점수 감소 폭으로 예측해 볼 때, 약 5년 정도 반복적인 활동의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착석유지, 눈맞추기, 상동행동 감소, 공공장소에서의 자위나 자해 감소 등)를 습득할 수 있고 심리적 불안정감을 해소해줌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함께하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적응운동 보조교사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엔 낯설어서 뒷걸음치던 아이들이 요즘엔 서슴없이 다가와 와락 안기는 모습이 더 익숙해졌어요. 제 기대보다 그 이상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느꼈던 순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한아 선생님



실습에서부터 보조교사까지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거부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장난치고 저의 안부를 물어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뿌듯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유경 선생님



외부강사 소개

사회적응운동 5단계 - 축구교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한층 한층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걸 가르치진 않았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강사 박광철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걸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강사 고종훈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주말 음악교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즐겁게 노래하는 아이들과 남은기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음악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발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강사 황정은

친구들과 함께 음악활동을 하는 토요일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합창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정과 과정이 남아있지만 아이들이 끝까지 즐겁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배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조강사 김주희

이용현황

전체 이용자실적보고(2014년)

사업분류	구분	인원(명)		대비(%)
		계획	실적	
사회적응지원사업	장애	19,517	20,671	106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장애	818	1,366	167
	비장애	60	222	370
운영지원사업	비장애	97	111	114
장 애		20,335	22,037	108
비장애		157	333	212
합 계		20,492	22,370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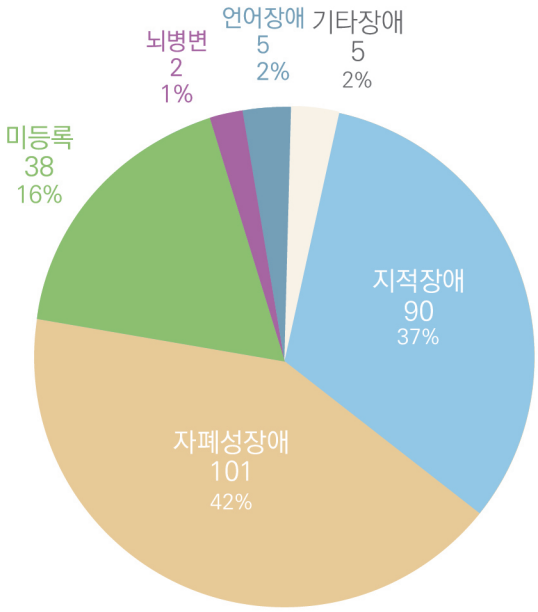
전체 이용자실적보고(2015년 1월~5월)

사업분류	구분	인원(명)		대비(%)
		계획	실적	
사회적응지원사업	장애	22,299	9,766	44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장애	1,844	954	52
	비장애	60	36	60
운영지원사업	비장애	76	56	74
장 애		24,143	10,720	44
비장애		136	92	68
합 계		24,279	10,812	45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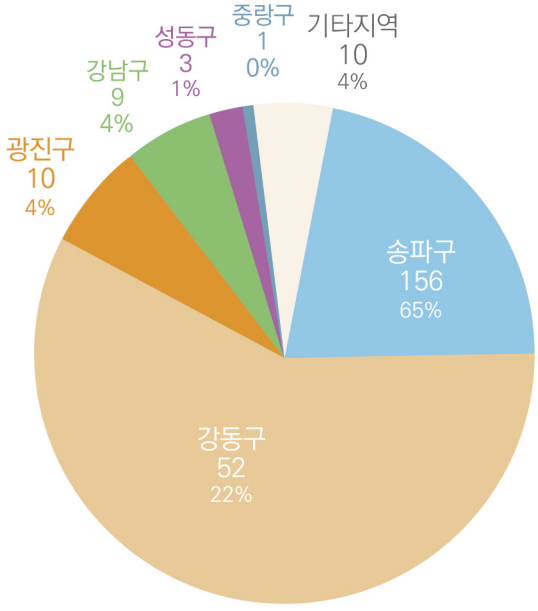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인원

장애유형별	2015. 05월(기준)
	241명
지적장애	90명
자폐성장애	101명
미등록	38명
뇌병변	2명
언어장애	5명
기타장애	5명



거주지별 이용현황

거주지별 이용현황	2015. 05월(기준)
	241명
강동구	52명
송파구	156명
광진구	10명
강남구	9명
성동구	3명
중랑구	1명
기타지역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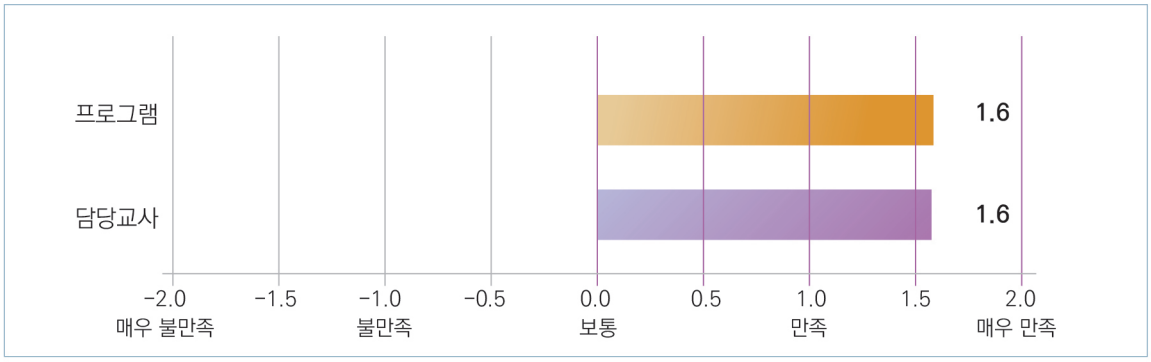


2015년 1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영 역	만족도
프로그램	1.6점
담당교사	1.6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사회적응지원사업 만족도 (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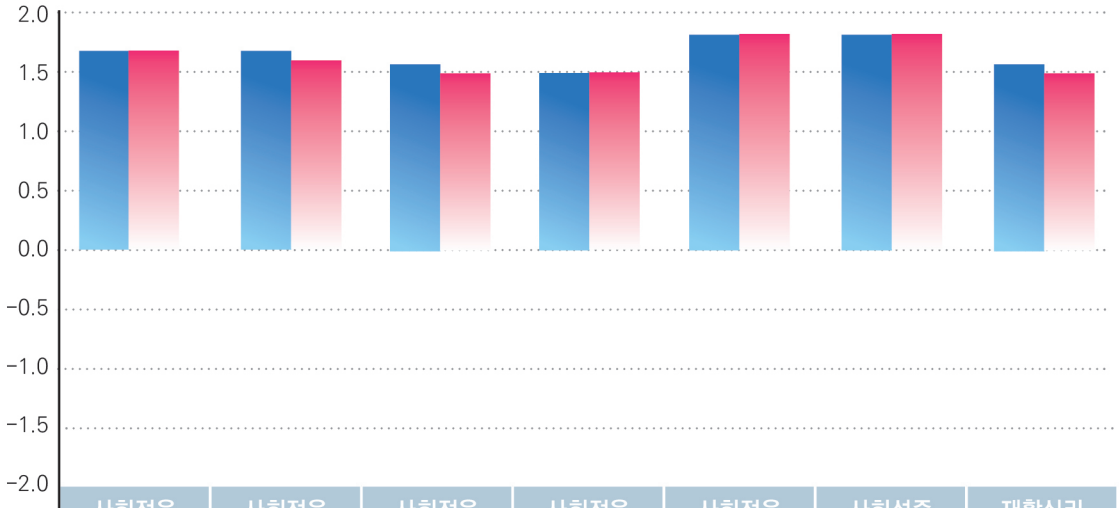


센터환경 및 운영 1.2
행정팀 직원 1.3

★ 전반적으로 센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1차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 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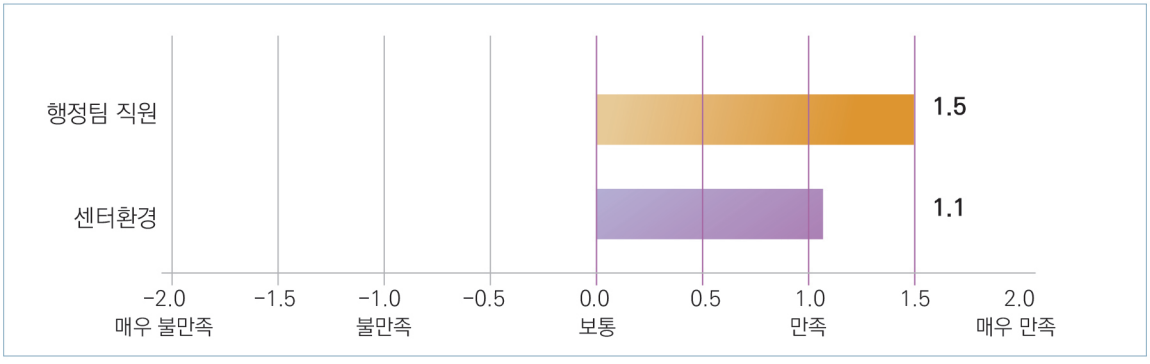


	사회적응 운동 0단계	사회적응 운동 1단계	사회적응 운동 2단계	사회적응 운동 3단계	사회적응 운동 4단계	사회성증 진반	재활심리 치료
담당교사	1.7	1.7	1.6	1.5	1.8	1.8	1.6
프로그램	1.7	1.6	1.5	1.5	1.8	1.8	1.5

2015년 1차 센터시설 및 환경/ 행정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 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센터 환경 및 행정팀 직원 만족도 (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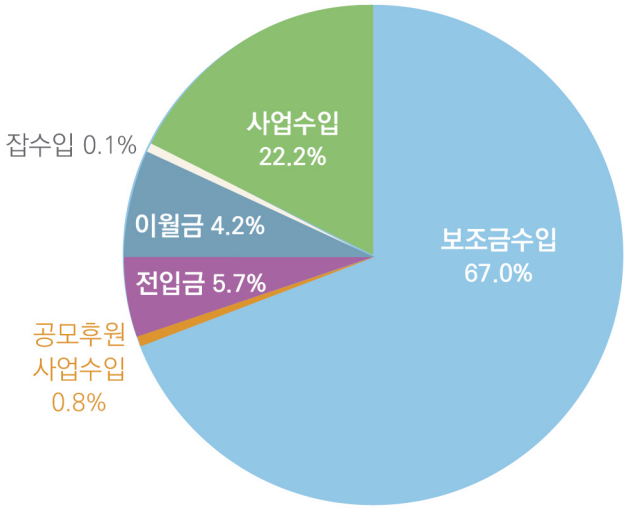


센터환경 및 운영 1.2
행정팀 직원 1.3

★ 전반적으로 센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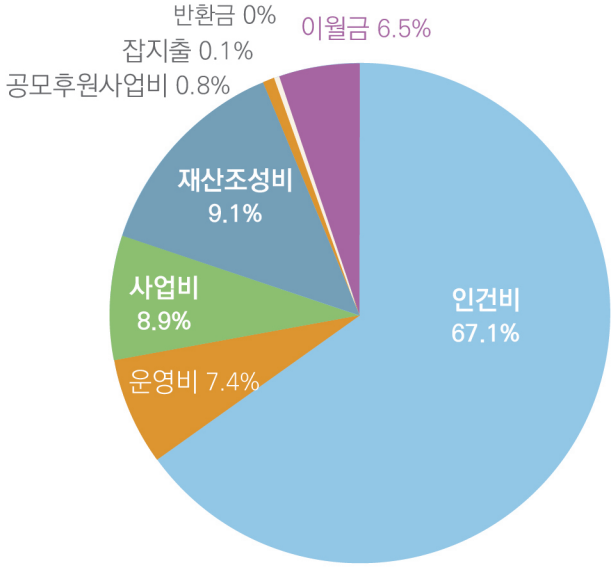
2014년 세입 세출 결산 내역





세 입

구 분	계
사업수입	120,907
보조금수입	364,427
공모후원사업수입	4,266
전입금	31,000
이월금	22,576
잡수입	447
세입계	543,623



세 출

구 분	계
인건비	365,024
운영비	40,451
재산조성비	49,373
사업비	48,642
공모후원사업수입	4,266
잡지출	424
차기이월금	35,430
반환금	13
세출계	543,623

‘꿈에 그린 도서관’소식

우리들의 모습들… 이모저모

꿈에 그린 도서관을 개관한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꿈에 그린 도서관을 찾아주셨고, 도서기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재활심리치료 놀이 치료 수업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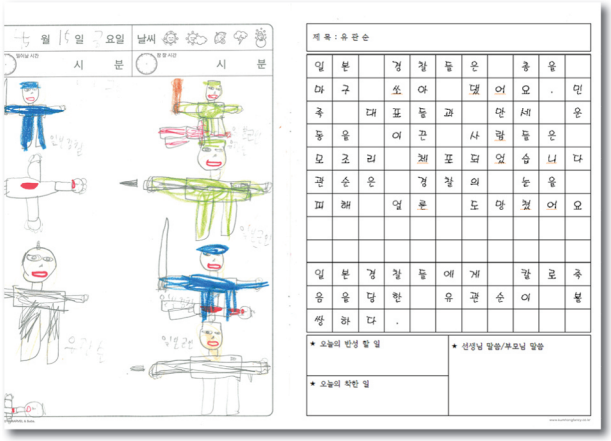
오늘은 도서관에서
집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고,
집을 그려보고,
또 만들어 볼까?



사회성증진반 독서지도 의현이의 독서감상문~







부모님들의 쉼의 공간



쉼의 공간 ‘도서관’

부모님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드립니다.

방법 :시원하게 신발을 벗고
다른 어머님들과 빙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보세요~

★ 도서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	월	성 명	권
1	1월	임연신님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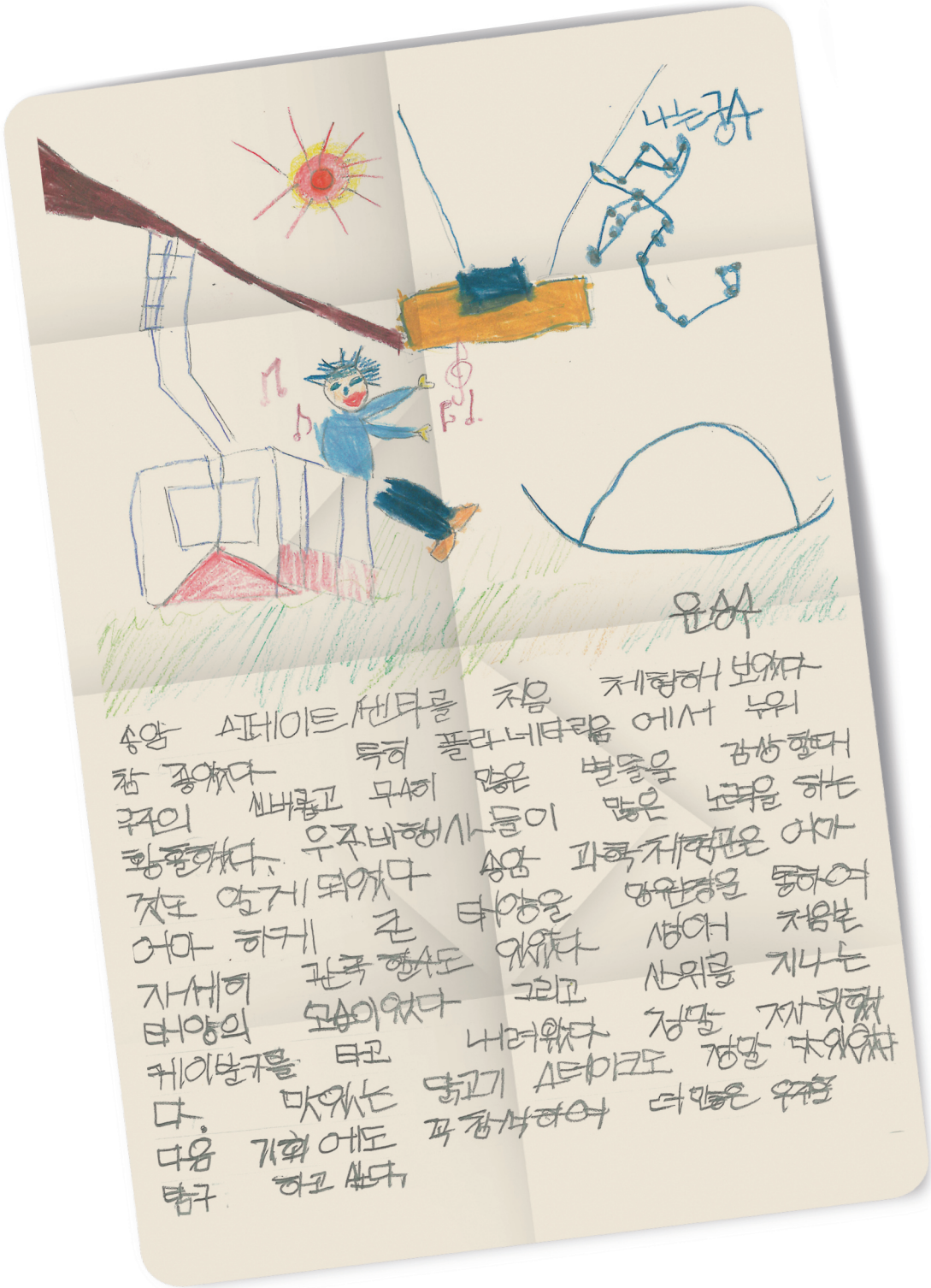
앞으로 많은 기증 부탁 드립니다.

하반기 센터 일정(7~12월)

월	휴관		행사	
	날짜	휴관사유	날짜	행사명
7			29일(수)	법률상담
8	3일(월)~7일(금)	하계방학	26일(수)	법률상담
9	28일(월)~29일(화)	추석연휴	23일(수)	법률상담
10	9일(금)	한글날	17일(토) 28일(수)	체험여행 법률상담
11			25일(수)	법률상담
12	25일(금) 29일(화)~31일(목)	성탄절 겨울방학	23일(수)	법률상담

* 법률상담은 센터 운영위원 신준우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승수의 추억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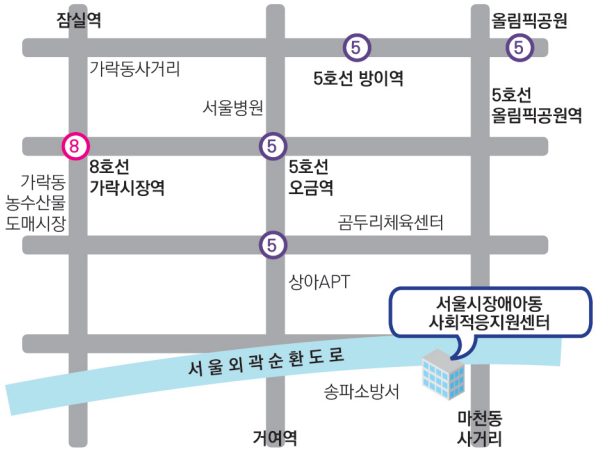




발달장애 친구들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오시는 길



5호선 오금역 6번 출구 3314, 3315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개롱역 3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3317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138-817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TEL:02-448-3302 FAX:02-448-6022

Copyright© Designcommunica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